

금융권, 200조원대 규모 퇴직연금 쟁탈전

1분기 적립금 잔액 100조원 돌파... 광주은행도 1조원 넘겨 수수료 인하·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서비스로 고객 모시기

올해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권은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고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올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112조989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97조8418억원 보다 15.4% (15조원) 증가했다.

제도별로 보면 운용 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은 56조8020억원, 가입자가 운용 주체인 확정기여형(DC) 37조 1538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19조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1분기(14조)보다 31.6%(4조 5700억) 급증했다.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200조원대로 추정된다. 각 금융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각종 서비스를 내놓으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지난 연말부터 수수료 인하 등을 내걸

며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온 광주은행은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 1조원을 넘겼다. 제도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3820억원, 확정기여형(기업IRP 포함) 5454억원, 개인형 퇴직연금 733억원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상품을 내놓은 뒤 5월 현재 7657개 사업장(기업IRP 포함)과 거래하고 있다. 올해 광주은행은 225개 사업장을 신규 유치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7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일하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한 확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 한국전력공사 90억원대 퇴직연금 사업자에 선정됐으며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전기관 3곳과 퇴직연금 거래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성장세는 최근 3년 동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말 6277억원이던 잔액은 3년 동안 3700억원 이상 불었다. 광주은행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과 휴업업체가

증가하면서 적립액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의 확정급여형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1.6%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5번째로 높다. 확정기여형(1.85%·5위), 개인형 퇴직연금(1.43%·6위)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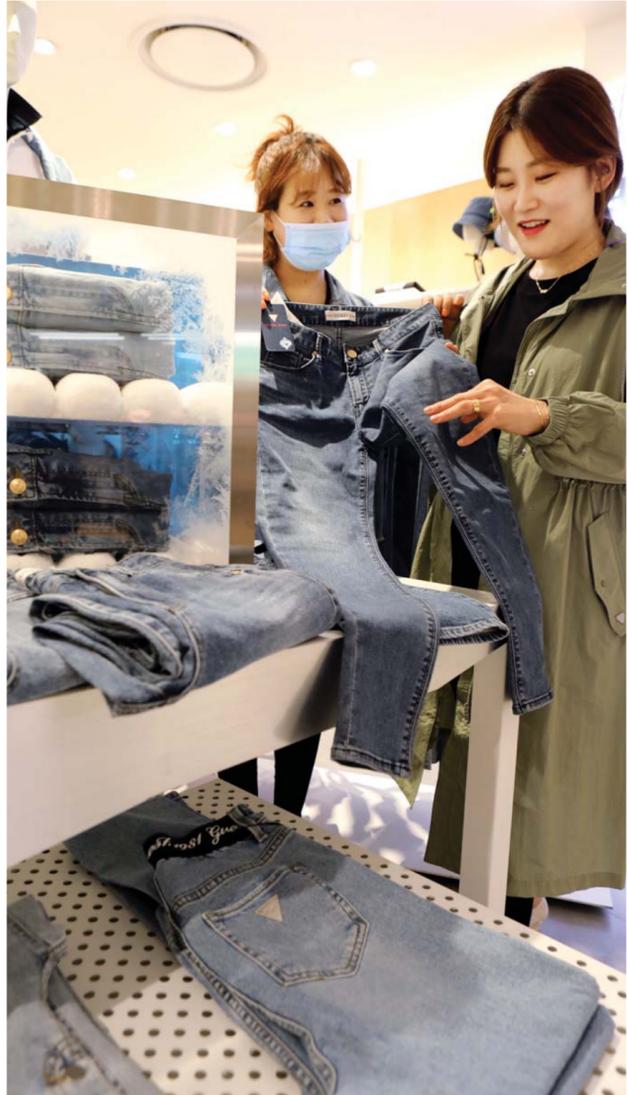
광주은행은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연금을 받을 때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를 깎아준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했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관리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스템 정비와 수수료 할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더운 여름엔 시원한 청바지” 이번주 낮 최고기온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날씨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3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 한 의류매장에서 기존 제품보다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 여름용 청바지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6월 '짙음' 개선

수출전망 4개월 연속 하락·제조업 가동률 계속 떨어져

중소기업 191곳 조사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6월 '짙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전망은 4개월 연속 크게 하락했고,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반년째 떨어지는 등 지역 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6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7.7로, 전월(77.2)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92.1)과 비교해서는 14.4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19 영향 탓에 전년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월(76.6)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77.5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전월(78.3)과 동일한 78.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72.3)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66.9로, 지역 제조업의 경기전망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비제조업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내수부양책의 영향으로 전월(81.0)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86.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75.1→77.2)과 경공업의전망(69.9→72.5)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자금사정전망(66.2→65.4)도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등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수출전망(44.4→35.3)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90.0)에 비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용수준전망(105.0→103.4)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5월 경영여로 상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부진(80.1%)이 가장 컸다. 이어 업체간 과당 경쟁(49.2%), 자금조달 곤란(36.6%), 인건비 상승(36.6%), 판매대금 회수 지연(31.9%) 순이었다.

올 4월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5.5%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63.7%, 전남은 1.1%포인트 하락한 68.2%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10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전남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광주·전남에는 2017년부터 총 34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지정됐으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은 광주가 4개사로 ▲썬아이코디(콘택트렌즈) ▲썬티디엠 ▲썬무등기업 ▲썬씨앗 등이다. 전남은 6개사로 ▲썬캠포트 ▲케이비엔 ▲매일식플러 ▲썬프리카 ▲한성푸드 ▲보원엠엔피 등이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255억원으로, 평균 수·수출액은 791만 달러다. 매출액 대비 36%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꼽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0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해 피어컨설팅과 전문컨설팅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어컨설팅은 사회적경제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전문컨설팅은 특허·지식재산권, 세무회계, 마케팅, 경영기술, 상권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광주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 양성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 활용지원센터'는 6월11일부터 12일까지 지역 수출기업 FTA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FTA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상의 지하교육장 2강 의실에서 진행되며, 지역기업 수출입 담당자들의 FTA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전

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됐다. 2일간 교육 이수 시 인증수출자 점수 20점이 부여된다.

강의는 ▲FTA 개요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인증 수출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 첫째날 박현수 관세사 둘째날 신상태 관세사가 14시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본 교육은 기본 교육과정으로 9월에 개최 예정인 심화 교육과정과 난이도를 차별화해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에 대한 기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일차 교육에서는 FTA개요,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2일차 교육에서는 수출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원산지 소명자료 작성 및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6월 5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91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4	16	21	27	37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38,755,602				16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4,091,136				66
3	5개 숫자일치	1,447,108				2,467
4	4개 숫자일치	50,000				122,530
5	3개 숫자일치	5,000				1,996,371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